

■ 말린체의 잃어버린 말들 - 소통과 불통의 신화⁵⁾

매튜 리스톨(Matthew Restall)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신화는 소통과 불통의 신화다. 역사적으로 소통(communication) 신화는 정복자들이 만들었으며, 이 신화가 정복 시기와 식민지 시대를 지배했다. 원주민과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원주민이 복종하고 협력하고 개종했다는 주장을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이 신화는 스페인인들에게 편리한 것이었다. 불통(mis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근대적 신화를 가장 명료하게 표현한 사람은 아마도 토도로프(Tzvetan Todorov)일 것이다.

소통과 불통이라는 주제는 지금까지 정복을 설명하는 것으로 잘못 이용되어 왔다. 그렇게 이용됨으로써 그것들은 신화가 되었으나, 이 신화는 정복의 결과를 적절하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복자들이 소통의 신화를 어떻게 만들어 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불통이라는 대항신화의 주장들을 검토한다. 마지막에는 정복의 몇몇 순간을 살펴봄으로써, 스페인인들과 원주민들이 서로의 의도를 어떻게 읽게 되었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두 극단 사이의 중간입장임을 말하고자 한다.

5) 이 글은 Matthew Restall, *Seven Myths of the Spanish Conquest*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3)의 제5장을 요약한 것이다.

소통 신화

스페인인들은 어떤 수준에서는 자신들과 원주민들 간에 실제적인 언어 장벽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믿음이 1513년 칙령의 근간을 이루었다. 이 칙령은 정복자들에게 원주민들을 공격하기 전에 스페인어로 된 문서를 읽도록 했다. 레케리미엔토(Requerimiento)라고 알려진 이 문서는 신이 교황에게, 정복자들에게 내린 일종의 명령 체계를 원주민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었다. 이 문서 어디에서도 통역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문서가 원주민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레케리미엔토는 원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스페인인들의 확신을 상징한다. 스페인인들은 가끔 언어 장벽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도 했다. 그래서 통역사들은 무시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종종 인정받고 존중되기도 했다.

불통 신화

불통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토도로프의 견해에 따르면, “콜럼버스는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데 실패했다. 왜냐하면 콜럼버스가 그들(원주민들)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토도로프는 멕시코 정복을 논의할 때 코르테스를 위대한 소통가로 만든다. 반면에 목테수마와 메시카 인들은 인간의 기호들을 읽지 못함으로써 패배하게 되었다고 비난받는다. 역사가 잉가 클렌디넨(Inga Clendinnen)은 원주민의 패배보다는 오히려 스페인 - 메시카의 관계들의 왜곡 때문에 잔인하고 파괴적인 전쟁이 일어났다고 설명하면서, 멕시코 정복 시기 동안 불통이 모든 방향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다. 엘리엇(J. H. Elliott)은 16세기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세계관에 적응하는 데서 겪었던 어려움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불통 신화에 대한 비판

메시카의 패배는 ‘인간들 간의 소통’을 지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토도로프의 주장을 르 클레지오는 좀 더 적나라한 용어로 제시한다. 르 클레지오는 코르테스가 칼보다는 말, 즉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무기인 말로 정복을 이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해석에는 몇 가지 차원이 있다. 가장 모호한 차원은 징표나 말에 관한 것이고, 좀 더 분명한 차원은 통역사에 관한 것이다. 그 주장이 갖고 있는 가장 분명한 차원은 쓰기에 관한 것이다. 토도로프의 주장이다. “상징주의의 ‘기술’이 있는데, 그것은 도구의 기술만큼이나 진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스페인인들은 아스텍 인들보다 더 ‘진보한’ 사람들이다(혹은 일반화하면 쓰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그것이 없는 사회보다 더 ‘진보한’ 사회다).”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도 특히 1532년 페루 북부의 잉카 도시 카하마르카의 중앙 광장에서 피사로와 아타왈파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쓰기가 유럽인의 우월성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이아몬드의 주장에 따르면, 읽고 쓰는 능력이 스페인 정복자와 잉카 황제의 만남의 성격과 결과를 설명해 준다. 쓰기가 정복자들에게 아타왈파보다 유리한 인식 상의 이점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아타왈파는 ‘빈약한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순진하고’ ‘치명적인 오산’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주장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아타왈파가 스페인인들에 관해 가지고 있었던 정보보다 피사로와 피사로의 동료들이 잉카 제국과 안데스 문화에 관해 가지고 있었던 정보가 더 나은 것이었다



아타왈파와 피사로

는 증거가 없다. 둘째, 안데스인들이 수 세기에 걸쳐 발전시켜온 말하는 기술이나 키푸보다 쓰기가 더 나은 의사소통 정보 체계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 셋째, “읽고 쓰는 능력으로 인하여 스페인인들이 [안데스인들에게는 거부된] 인간행위와 역사에 대한 거대한 지식 체계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주장은 매우 문제가 많은 일반화다. 넷째, 다이아몬드의 전제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아직도 결코 분명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의 주장은 코르테스 - 목테수마의 만남의 경우를 보면 설득력이 더 떨어진다. 메소아메리카인들은 쓰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또 다른 신화(원주민의 비참함 신화)에 호소하게 된다. 즉 “목테수마는 착오로 코르테스를 귀환한 신으로 생각해서 코르테스와 코르테스의 군대를 아스텍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다.

다이아몬드의 쓰기에 대한 주장은 중세 시대에 쓰기가 야만인들과 문명인들을 구분해 준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화의 일부다. 20세기말에 자민족중심주의를 반박하는 학자들도 여전히 쓰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월성을 나타



목테수마와 코르테스의 만남

낸다는 믿음을 완전히 깨지 못했다.

따라서 피사로와 아타왈파의 만남은 불통 신화가 얼마나 지속 되어 왔는지, 정복을 설명하려는 학자들이 얼마나 그것을 이용해 왔는지 보여 주는 예다. 하지만 스페인인들과 안데스인들의 소통 기술 간의 차이는 페루의 정복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 도미니크파 신부 비센테 발베르데와 잉카 황제가 실제로 접촉했던 그 순간이 불통의 상징적인 순간이 아니겠는가? 이는 몸짓에서 문화 충돌이 일어났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순간이었다. 정복자이자 연대기작가였던 프란시스코 데 헤레스는 카하마르카에 같이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아타왈파가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땅에 던졌다고 썼다. 신부가 피사로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때 피사로는 황제를 사로잡고는 총공격의 신호로 ‘산티아고’를 외치며 전쟁을 선언했다. 그것은 아타왈파의 불

경스러운 행동에 대한 반응이었다.

유사한 경우를 코르테스와 목테수마가 첫 만남에서 한 말에서도 볼 수 있다. 목테수마의 연설은 분명히 성공적인 소통의 행위였다. 오랫동안 기다려 온 귀환한 군주라는 주제는 스페인인들의 저술뿐 아니라 나우아 어로 된 저술들에도 나타난다. 하지만 그것은 목테수마가 말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을 뿐이다. 목테수마의 연설을 듣고 스페인인들은 원주민들이 복종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메소아메리카 문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메시카 문화에서는 정중한 연설의 언어가 매우 발달해 있었다. 따라서 목테수마와 목테수마의 선임자들이 코르테스의 도착을 기대하면서 메시카 제국을 통치해 왔다는 목테수마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목테수마의 지위와 여러 세대에 걸친 정당성과 중요한 손님에 대한 환대를 나타내기 위한 수사적인 장치다. 그렇게 해서 아타왈파와 피사로의 만남과는 달리, 스페인인들은 목테수마와 성공적인 소통을 이루었다. 분명히 정복 시기 동안에 많은 오해가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불통이 정복을 설명해 줄 정도로 스페인인들에게 유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페인인들과 원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말이 중요하긴 했지만 정복 초기 몇 십년 동안 스페인인들이 가장 성공적으로 소통했던 것은 칼과 나침반을 통해서였다.□

[번역/요약: 김윤경]